

21년 된 의자

가라지(Garage) 세일에서 21년 전에 15불을 주고 구입한 의자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. 그 의자는 길게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를 위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 위하여 편안한 의자를 찾던 중 동네 토요일 가라지 세일에서 구입한 의자였다. 하지만 그 의자는 15불짜리가 아니었다. 적어도 100불은 넘을 줄은 의자인데 중고품이니 그렇게 팔았던 것 같다.

그 의자는 지난 21년 동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. 설교를 준비 할 때에도 항상 그 의자에 앉아서 했고, 고민을 할 때에도, 재미있는 것을 볼 때에도, 또한 많은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 의자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. 의자가 불편해서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그 의자가 이제는 정말 오래 되었는가 보다. 얼마 전부터 약간 옆으로 기울기 시작한다. 조금씩 빼거덕 거리며 오래 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.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중고 의자를 보기 시작 했다. 그러다가 며칠 전 찾던 의자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서 20불에 구입을 했다. 그런데 그 의자도 새 것은 150불이 넘을 줄은 의자였다. 그런데 그 의자를 집 안에 들여 놓으며 21년 된 의자를 차고로 옮겼다.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아쉽고 미안하고 섭섭한 이유는 무엇일까? 실은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의자였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것보다도 물건에 불과하지만 나 나름대로 그 의자에 정이 붙었으나 보다.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의자이고 나의 기쁨과 슬픔을 전부 보았던 함께 한 의자였기 때문이다. 하지만 새로운 의자가 아무래도 더 편한 것이 사실이다.

우리는 나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. 전부 잘 챙기면서 살기가 쉽지 않다. 나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. 알게 모르게 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퍼부어 주었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. 지나가는 인생 한 부분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고마운 분들이다. 어떻게 해야 할까? 그분들을 전부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? 한 순간 그 의자를 보면서 그 의자를 버릴 수 없었던 마음과 같이 잊으면 안 될 분들을 하지만 잊어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.

내 마음에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그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.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. 나의 지금의 모습을 잘못 이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. 그리고 나의 21년 된 의자와 같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.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 없다. 오래된 의자를 문 밖에 내다가 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.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실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.

하나님은 “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” (이사야 12장 4절)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라 하신다. 또 다시 기억하고 본질에서 떠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.

그 21년 된 의자는 다음 가라지 세일에 15불에 내 놓으려고 한다. 충분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한다. 그 의자는 나에게 지난 21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.